

3. 풍성한 삶의 원리: 부르심 앞에 서라!

본문: 사도행전 26:16-18

16.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낸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네 발로 서라!

성공적인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오늘의 원리는 '부르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을 '고무줄의 원리'로 설명해도 좋을 듯합니다.

고무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늘어난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고무줄이 늘어나지 않고 수축된 상태가 전제 되어야 겠지요.

고무줄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는 늘어나기 위한 준비 상태는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성공이란 아직 늘어나지 않은 고무줄과 같아서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아직은 다 늘어나지 않았지만 성장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바울을 통해 보는 것은, 깨어진 그의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으로 말미암아 한껏 부풀어 오른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구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 왜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재판정'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그립방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장에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던 열정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고백입니다.

'눈을 뜨게 하여'라는 말이 단순히 육신의 눈이 다시 보게되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 열망으로 가리워졌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인생을 새롭게 보게하셨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인생에서 타인을 구원하는 삶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도바울의 고백과 자기변증에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늘 등장합니다.

하나는 '휘페레테스'라는 말이요, 다른 하나는 '마르티스'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종의 삶을 사도바울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휘페레테스'는 초대교회 당시에 '종'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인데,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종ियो 어떤 자율권도 가지지 못한 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 무기력'인 동시에,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전적 위임'인 것입니다.

전적 무기력이 늘어나지 않은 고무줄이라면, 전적 위임에서 최대치로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기 보다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마르티스'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증인으로 삶이라는 알았기 때문이죠.

이제 무언가 그의 삶을 이끌어 가는 동력이 생긴 것이죠.

그의 삶의 주인이신 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분을 증거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들의 기준에 의하면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공부한 것이 명예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것이 권력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은 오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그립바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을 보세요.** 죄인으로 왕 앞에 서있는 그가 어찌 이리 당당 할 수 있을까요?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을 보니 그의 인생의 당당함이 우리가 꿈꾸는 성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잘 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난 후에 무엇이랴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8**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부르심은 우리 인생에서 성공에 대한 개념조차도 바꾸어 놓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입니다. '교회 성장학'이라는 강의를 오픈하고, 이 강의를 신청한 학생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교회 성장과 성공에 대한 망상을 버리십시오! 교회의 성공은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성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장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형교회를 이루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성교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꿈꿔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비전이, 교회성장에 대한 망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숫자를 더하시는 것이 교회성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삶이 허무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열심’이 아니라 ‘방향’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의 삶이 허무함을 낳았다면, 지금의 삶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의 삶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었지만, 지금의 삶은 죄인이 되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형편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선일 장로님이 쓴 [자칫하면 대충 살 뻔 했다]에 보면,

“모욕은 의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면 3가지로 반응한다.

첫째는 모욕을 모욕으로 갚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보통사람’이라고 한다.

둘째는 모욕을 의욕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라 부른다.

셋째로 모욕을 사랑으로 되돌려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지도자’라 부른다.

. . . .

우선, 모욕을 잘 받으라, 모욕을 모욕으로 되갚지 말라,

모욕을 의욕으로 바꾸라. 이런 과정이 당신을 성숙으로 이끌 것이다.

최종적으로, 어떤 모욕이든 사랑으로 감쌀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진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1998년 12월 17일자 조선일보에 소개된 에이미 멀린스라는 여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난 여인의 모습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해 볼까요? 미국 장애인 육상선수 겸 패션모델,

100m를 15.77에 주파하고 200m를 34.60에 주파하는 준족.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때 멀리뛰기 최고기록 3.5m.

미 조지타운대학 시절 육상팀 정규 멤버로 활약,

지난 9월 런던에서 열린 “지방시” 수석 디자이너 알렉산더 매킨의 99년 스프링 컬렉션 무대에 오프닝 멤버로 참가. 그녀가 의족을 끼우고 무대를 도는 동안 관객 대부분은 장애인 이라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

“그녀는 장애인은 육체적으로 열등하고, 아름답지도 않다는 편견에 도전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종아리뼈가 없었다. 의사들이 ‘다리를 절단하면 의족을 사용해 걸을 수 있지만, 그대로 두면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하자, 그녀는 돌잔치 날에 수술을 받았고, 후유증 때문에 3살, 5살, 8살 때 재수술을 받았다.

학창시절 미니스커트가 유행할 때 자신의 모습이 비참 했지만, 남자 친구 에릭 덕분에 좌절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당시의 축구부 주장으로 미남이었던 에릭과 사귀던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물었다 “왜 하필 다리도 없는 나와 사귀느냐”고, 에릭은 웃으면서 “다리가 없다는 걸 눈치 챘을 때는 이미 훌쩍 반한 다음이었다.”고 대답했다.

태어날 때부터 종아리뼈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도 위대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아직 늘어나지 않은 고무줄일 뿐이다!

문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이 살아가야 할 방향과 열정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늘’이라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열정이 끝나는 순간이 아닐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비전을 가졌을 때 세계를 정복했으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난 후에는 술병 하나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비전을 가졌을 때는 골리앗을 정복했으나, 그것을 잃자 자신의 정욕조차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비전을 가졌을 때 그는 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으나, 그것을 잃자 여인과의 전쟁에서조차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왕으로서의 비전을 가졌을 때 많은 왕들을 정복할 수 있었으나, 그것을 잃었을 때 자신의 질투심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당대의 완전한 자로’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방주를 지어 인류의 존속에 기여할 수 있었으나, 그것을 잃었을 때 술 주정뱅이가 되어 수치를 당했습니다.

엘리아는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에 선지자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수 있었으나, 그것을 잃었을 때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뿐 아니라 자살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6장 16-18에 나와 있는 바울의 비전은 이름이 바뀐 다음에 고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주어졌던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꿈이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님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나?” 헬렌의 대답입니다. “시력은 있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지난 해 3. 1운동 백주년 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유관순열사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는 최고의 예우를 했습니다.

18세의 나이에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다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에는 코와 귀가 다 잘려져 있었고, 손과 발이 다 끊어지고 부러져 흔들거렸다고 합니다.

유관순의 어록 중에 하나죠.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다!”

꿈을 가진다고 하는 것, 비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위에는 “몽상”을 하는 사람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몽상가는 말은 많지만 행함은 없습니다. 그들은 서툰 계획과 생각을 꾸밀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몽상가는 훈련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꿈을 가진 사람은 적게 말하고 많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이의 성공은 마치 고무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과 고무줄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수축과 확장의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내 뻗어야 할 것과, 움츠려야 할 것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깨어짐의 순간들을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짐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찰스 스탠리의 책 [깨어짐의 은혜]에 보면, 깨어짐으로 인한 위대한 다섯 가지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 혹은 ‘깨어짐’으로 인해 위축되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배우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개구리가 점프하기 위해 잔뜩 웅크리는 것 것처럼 말이죠.

1.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절절하게 느껴지는 때는, 우리의 계획이 깨어지는 아픔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통찰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뜻이 깨어져 봐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리고 보니,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부딪칠 때마다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2.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도 커다란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깨어짐의 시간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 돌아봄의 시간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의 '죄'와 '교만' 그리고 '불순종'이죠.

그리고 이런 성찰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점점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깨끗해지며, 강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3. 깨어짐을 통해 우리가 얻는 또 하나의 유익은 다른 사람을 더욱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이 보이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 또한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 가슴이 깊이 와 닿게 됩니다.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이 참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자비와 친절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니, 우리도 누군가를 충분히 용서해야 하는 이유와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의 깨어짐으로 인해, 남을 덜 비판하고 덜 판단하게 되고, 오히려 나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4.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또한 삶에 대한 더 큰 '열정'이라는 축복을 선물로 얻습니다.

깨어짐의 은혜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주변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

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은 '열정'입니다.

온갖 것들이 귀하게 여겨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 . . .

5.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 마지막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깨어짐의 순간은 아프고 버거운 일이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라는 고백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만들어 주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확신합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안전함'을 느끼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는 온갖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의 고백인 "나를 보내소서"는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비전을 보고,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난 후에 이루어진 고백인 것을 알아야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멈추어서 자신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죄성과 부족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도 보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행하실 일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은 멈추어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뒤로 잔뜩 당기원진 고무줄은 앞으로 뿔쳐나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의 "고무줄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난 후, 절대로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꿈을 저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리는 이제 기꺼운 마음으로 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꿈을 위한 **정당한 값의 지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어떤 일도, 어떤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몽상가"에 불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지금 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즐기든지, 혹은 지금 즐기고 나중에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현재 자신의 몸을 파괴하고 있는 쾌락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을
즐거운 시절을 얻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팔죽 한 그릇에 장자 권을 팔아버린 예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
이는 보고픔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저버린 사람은 절대로 꿈의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여자는 결혼하기
위해 다른 모든 남자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남자는 결혼하기 위해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다.

‘선택과 포기’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무줄’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아직은 아니지만 당겨지고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함을 믿
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당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고등학생이 당구를 치는
것이 학칙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시간은 밤
12시를 넘긴 때였죠.

학력고사를 앞두고 시험 준비를 한다고 독서실에 있었지만, 12시가 넘어가면 당구를 치고 싶
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당구장에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성적은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이 그렇게 생활을 하니 늘 마음에는 죄책감이 있었
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는 잠을 자지 못하고 다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 시
간이 되면 어머니는 새벽예배에 가기 위해 나오셨고, 공부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발 잠 좀
자면서 공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은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게 놀면서도 정해진 신학대
학에 간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숨겨 놓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네가 성적이 안 되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가야한다면 보내지 않겠다!”

그 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놓아버린
수학과 영어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과목의 성적을 종합해서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갈 때였으니, 다른 과목에 매달
리기 시작했죠. 아마도 영어 수학을 포기한 채로 맞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얻었던 것 같습
니다. 결국 감리교 신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지만, 공부하지 않고 놀았던 것에 대한 책
임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점수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룬 영

어시힘에서 저는 아주 열등한 반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랫동안 열등감을 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열등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열심히 공부를 했을 텐 데, 저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로 다가왔고 학교 강의실에 있는 시간보다는 학교 앞 당구장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당구로 시작한 학교생활은 당구점수가 올라갈수록 학점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장학생이 바로 다음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제 삶이 달라진 건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면서 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소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공부해서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당연히 대학원에 진학해야 하고 유학도 갔다 와야 하니, 영어와 독일어 그리고 신학공부들을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6개월 만에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끼야 했고, 머리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시절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잠을 한번 실컷 자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만일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저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금만 정직하지 않았으면 쉽게 올수 있는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 부와 명예를 가지는 것들이라면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공부에 관한 한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반에서 일등은 한명 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지 공부해서 1등을 하라고 하는 비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벌어서 사업에 성공해야 하는 비전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성공에 대하여도 똑 같은 원리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비전은 돈과 명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의 명예와 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이라야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런 인생의 확신과 역동성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가 처음으로 고백한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저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사도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아그립바 왕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

고 자기변증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 닿기 시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이어서 3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닿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방해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몇 해 전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아주 인상적인 교회학교의 발표순서가 있었습니다. 소망부 친구들이 강대상으로 올라라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망부원들의 연주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 신앙의 원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로 올라온 소망부 아이들은 자신들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올라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아이들 속에서 무엇인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어린이들을 안고 있는 선생님들의 손이 지체 부자유자들의 손을 덧잡고 시작할 때 무엇인가 하모니가 되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 위에 닿기 시작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든 어떤 것도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함께 찬양

*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